

# 시민들이 꾸며가는 풀뿌리 문화 공간

## 문화 아지트

### ① 이매진 도서관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지난 8일 개관한 '이매진 도서관'. 청년단체 '오월청년'이 시민들의 기부로 운영하며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다. 소설, 동화책, 인문학도서 등 약 1000여권이 비치됐다. <이매진 도서관 개관>

도서관은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벽면 가득 채운 수만권의 책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묻고 독서나 공부에 열중한다. 혹시라도 발걸음 소리가 크게 나거나 기침이라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스스로 무안해진다.

지난해 7월 개관한 메이홀(관장 임의진) 2관 '이매진' 아래층에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0일 쫓은 '이매진 도서관'은 지금까지 생각한 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길 건너편 건물(동구 문화전당로 29)의 좁다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3층에 빨간색 글씨로 '이매진 도서관'이라고 써진 문패와 나무문이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손잡이가 없다. 잠시 당황했지만 손으로 밀자 축 열린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의도했다. 문을 열면서 온 벽을 둘러싼 책장과 뿔뿔이 꽃혀있는 책, 겨우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놓여있는 책상을 예상했지만 오산이었다.

도서관을 들어가면 책장과 열 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가 보인다. 약 150㎡(45평) 공간은 여유가 넘쳐보였고 창문 앞에는 해먹까지 있었다.

도서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해먹을 놓아둔 이는 임의진 메이홀 관장이었다. 임 관장은 아마존 여행 때 브라질 원주민들이 '하모카스'(해먹) 위에서 나무늘보를 안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여유'를 느꼈다고 한다. 해먹은 여유의 상징이었다.

전당쪽으로 난 큼지막한 창문으로는 햇빛이 쏟아지며 굳이 조명을 켜놓지 않아도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무실 창문에는 아일랜드 어느 시골교회에서 가져온 알록달록한 스테인글라스도 보였다.

이매진을 운영하는 '오월청년'들은 지난 6개월간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했다. 문 설치부터 페인트칠, 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심지어는 바닥작업

까지 직접 했다. 도서관지기는 강스엘 5·18 기념교회 부목사가 맡았다. 그는 "바닥작업을 하는데 기술자들은 2시간이면 하는 일을 9시간이나 걸려서 했다"며 "이매진과 도서관을 직접 꾸미다 보니 웬만한 인테리어업자들만큼 실력이 늘어난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매진 요리반에서 활동하는 김보라씨는 지난 공사 기간 동안 식사를 책임졌다. 빼어난 요리실력 덕에 그녀의 별명은 '함바집주인', '보라 마리아'였다. 김씨는 "그동안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없이 기분 좋게 일을 했다"며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열정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옆공간에는 약 15㎡(5평)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1월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김사 무엘씨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지난 8일 정식 개관식을 열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치된 도서는 약 1000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칼 세이건의 물리학 관련 책, 각종 성서 연구서들과 외국 서적 등 다양한 종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월청년'들은 앞으로 5·18과 광주, 지역작가의 서적들을 더 모아 '광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만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많이 가져다 놓을 예정이다.

책장의 빈 공간은 시민들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들의 후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이 '민립도서관', '동네책방'을 표명하는 곳이라 이익에 얽매지는 순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다고 생각한다.

강스엘씨는 "이매진 도서관은 메이홀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풀뿌리 자생 공간의 완성형이다"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책을 남들과 함께 보는 진정한 '나눔'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용시간 오후 1~7시. 문의 010-4132-816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매진 도서관에 설치된 해먹의자.

## 따뜻한 투박미...한국적 추상화의 정점

보성 우종미술관 29일까지 김선두·정종미 초대전



정종미 작 'Earth'

해마다 국내외 역량있는 작가를 초청해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조명해보는 보성 우종미술관이 연례기획전 '모레가람'을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김선두·정종미 작가를 초대했다.

장흥(김선두)과 대구(정종미)에서 태어난 두 작가는 다른 듯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 30여점을 출품했다. 주제 '모레가람'은 섬진강을 지칭한다. 영호남과 맞닿아 있는 섬진강의 아름다운처럼 서정적인 자연과 인간을 담은 산수화를 선보인다. 전통기법인 장지에 채색화를 그려 한국의 미학을 보여준다. 특히 고려불화에서 볼 수 있는 배채법 등 색채에 깊이감을 부여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김씨의 작품 '느린 풍경' 연작을 보면 투박한 듯 따뜻한 고향의 풍경이 그려지고 정씨의 '자연인', '몽유도원도' 등은 한지와 천연염색을 통해 한국적 추상의 맛을 보여준다.

중앙대 예술대학 한국화학과·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미국, 독일 등지에서 개인전을 기졌고 현재 중앙대 한국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씨는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아일랜드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현재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교수, 한국 색채 연구소장 등에 재임 중이다. 문의 061-804-1091. /김용희기자 kimyh@

## 거래가 5억 이우환 작품 위작 의혹

경찰 "감정업체 감정 결과 거래 감정서 위조 확인"

경찰이 국내 주요 미술품 경매에서 5억 여원에 거래된 한국 미술계의 거장 이우환(80) 작가의 작품에 첨부된 감정서가 위조됐다고 밝혀 이에 따라 위작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한국화랑협회에 경찰이 지난해 12월 15일 K옥션 경매에 출품된 이우환의 1978년 작 '점으로부터 No. 780217'에 첨부된 감정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작품은 4억9000만원(수수료 포함 5억 7085만원)에 개인에게 낙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그림을 압수해 지난 5일 감정업체에 맡겨 감정한 결과 매물에 첨부된 감정서를 위조 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그림이 위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감정서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감정서가 위조됐다는 점에서 작품의 위작 의혹 또한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36년생인 이우환 화백은 한국의 대표적 현대미술 작가로, 그의 작품은 해외에서



이우환 작 '점으로부터 No. 780217'

도 유명해 각종 미술품 경매에서 고가에 거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이우환 화백의 위작들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동 화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화백 측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는 위작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연합뉴스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